

꼭 막힌 돈줄... 사채 내몰린 서민

최고 年 600% '살인이자' 등 564명 피해 광주경찰청, 악덕 대부업자 17명 검거

장기 불황으로 광주·전남지역 서민들이 대거 사채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600%의 '살인이자'가 등장하는 등 각종 사금융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음성적인 무등록 고리대금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다 채무자에 대한 협박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광주·전남에는 총 654개의 등록 대부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대출 규모는 2천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대출규모는 최근 1년새 30%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과 저축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인 이후 사채시장을 찾는 서민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광주·전남은 무등록 업체들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법정 이자(49%)보다 훨씬 높은 고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뜰스나 돈줄이 마른 서민들을 버려둠으로 내몰고 있다.

이들은 일부 대출자들이 낮은 신용도로 인해 등록 대부업체에서 조차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턱없이 높은 '살인 이자'를 강요하는 실정이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영세상인과 유증업소 종업원 등 564명에게 급전을 빌려준 뒤 최고 10배가 넘는 '살인 이자'를 받아오던 불법 대부업자 17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3년간 지역내 상인과 유증업소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총 24억7천만원의 사채를 빌려준 뒤 연 103%~576%의 고리를 받아 갚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이 이자를 연체할 경우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유증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가족들에게까지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광주 경찰은 지역내 유증업소 업주 가운데 상당수가 사채업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한 뒤 종업원들에게 '선불금' 성격의 사채를 빌려준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도 지난해 11월 76명의 불법 사채업자를 적발한 데 이어 최근에도 사채업 관련 단속을 진행하여 지역내 사금융 관련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세계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얻은 정유정씨는 "소설을 통해 버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20대 젊은이들에게 문명의 족쇄를 헤쳐나갈 용기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글쓰기에 미친 간호사 국내 최고 상급 문학상 수상 "열정을 쏟았다... 성공이 왔다"

특급작가 예약 광주 정유정씨

'문학소녀'였던 정유정(43·광주시 북구 일곡동)씨는 25년간 단 한 번도 '글쓰기'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간호사로 근무하며 힘든 일상을 보낼 때도 정씨의 가슴 속에는 언젠가 소설가의 꿈이 자라고 있었다.

정 씨는 올해 김별아(미실), 박현욱(아내가 결혼했다) 등을 배출해낸 1억 원 고료 세계문학상

(세계일보사 주최)를 거머쥐며 꿈을 이뤘다. 당선작은 정신병원에 갇힌 20대 젊은이의 탈출기를 그린 휴먼드라마 '내 심장을 쏴라'.

지난 2007년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로 제1회 청소년세계문학상(상금 5천만원)을 수상했던 정 씨에게 두 번째 찾아온 행복이다.

함평 출신인 정씨는 어린 시절부터 백일장 대회를 휩쓸었다. 그

러나 보건소 간호사였던 어머니가 문과에 진학하는 걸 반대했고 광주기독교대학교를 거쳐 간호사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글쓰기'에 대한 갈증은 깊어 갔다. 대학시절에는 국문과 친구들의 소설 속제를 대신 써 주며 허기를 달랬고, 직장에 다닐 때는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홀로 글을 쓰며 고독한 시절도 보냈다.

<2면으로 계속>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알림

생생한 유럽을 만난다

본사 정상필 기자 EU 특파원 파견

광주일보가 국제질서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특파원을 파견합니다.

본보 편집국 정처부 정상필 기자는 2일부터 '세계의 문화수도'인 파리에 체류하며 EU의 현장 소식을 독자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정 특파원은 유럽의 찬연한 문화와 인간 중심의 선진 녹색산업과 환경, 열정적인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EU의 구석구석을 소상하게 전해드릴 것입니다.

정특파원은 특히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BIE(세계박람회기구) 사무국과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취재를 통해 2012년 여수엑스포, 2015년 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 유치 전망에 대해 가장 빠른 뉴스를 타진하게 됩니다.

이 밖에 유럽의 다양한 문화 관련 산업 및 정책, 다문화 가족 실태와 각종 복지 정책, F1 도시 탐방, 유럽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 중인 태권선수 활약상 등도 생생하게 보도할 계획입니다.

光州日報社

여죄 의심 4건 새로 드러나

경찰, 연쇄살인범 추공

경주시 남부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일 연쇄살인범 강호순(38)을 상대로 새로 드러난 4건의 여죄 의심 사건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충남경찰청의 공조수사 의뢰에 따라 강 의 고향인 충남 서천군에서 2004년 5월 발생해 모두 4명이 숨진 일련의 화재 및 살인사건에 강이 연루됐는지 확인 중이다.

<관련기사 6면>

2004년 5월 2일 새벽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의 카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여주인 김모(43) 씨의 자녀와 이웃 주민 등 3명이 숨졌고, 김 씨는 8일 뒤인 10일 오전 서천군 기산면 용곡리 교각공사 현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강은 이들 사건 발생 시기가 포함되는 2004년 2월 13일부터 2006년 10월 19일까지 충남 서천군 시초면 후암리 어머니 집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주소지는 두 건의 사건 장소와 4~7km 거리에 있다.

경찰은 또 충남경찰청이 지난해 1월 24일 서천군 중촌면 지실리의 한 슈퍼마켓이 불타고 여주인 김모(75세) 씨가 실종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조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이 사건도 강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인전경찰청도 지난해 5월 최초(50세·여·요양병원 조무사) 씨가 귀갓길에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모 백화점 버스정류장 앞에서 실종된 사건에 대해 경기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밖에 지난해 11월 4일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도로공사 현장에서 백골로 발견된 광모(여·30·유증업소 종업원) 씨 피살사건과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다.

/연협뉴스

광주시, 정부와 '5+2' 막판 조율

"지하철 화순·나주 연장, 車부품 단지 등 포함해야"

광주시가 광역생활철도(광주~화순·나주혁신도시) 건설과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 조성, R&D특구 지정 등을 '5+2 광역경제권' 사업에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정부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사업에 이들 사업을 포함, 추진한다는 것을 약속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조만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내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시는 그동안 정부와 협상에서 이들 사업의 반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자,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생활철도 사업은 광주 지하철 1호선을 화순, 나주혁신도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광주를 축으로 인접 시·군의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부품산업 단지조성과 R&D특구는 투자유발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큰 광주시의 최대 현안 사업이다.

이와 관련,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1월7일 광주시를 방문, "광주시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과 R&D 특구 지정 등에 대해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호남 소외 가장 우려'를 제기하며 '5+2 광역경제권' 사업 참여를 거부해왔던 광주시는 정부 입장이 나오는 대로 '5+2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계획서 제출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영기기자 zenfoot@kwangju.co.kr

2009학년도 9월학기 중국 명문대학 신입생 대모집

누구나 감수있는
아무나 감수없는

성공 중국유학!!

2008 동북대학 입학생 모집요강

1. 모집대학 및 학과 안내

대학명	학과명	선정	비고
동북대학	경제학부	선정	선정
동북대학	경영학부	선정	선정
동북대학	법학부	선정	선정
동북대학	사범부	선정	선정
동북대학	교육학부	선정	선정
동북대학	체육학부	선정	선정
동북대학	음악학부	선정	선정
동북대학	미술학부	선정	선정
동북대학	건축학부	선정	선정
동북대학	환경학부	선정	선정
동북대학	생물학부	선정	선정
동북대학	화학부	선정	선정
동북대학	물리학과	선정	선정
동북대학	지구과학부	선정	선정
동북대학	수학부	선정	선정
동북대학	컴퓨터학과	선정	선정
동북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선정	선정
동북대학	정보통신학과	선정	선정
동북대학	전자정보학과	선정	선정
동북대학	응용전자학과	선정	선정
동북대학	응용물리학과	선정	선정
동북대학	응용화학부	선정	선정
동북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선정	선정
동북대학	응용식품과학부	선정	선정
동북대학	응용의생명과학부	선정	선정
동북대학	응용기계공학과	선정	선정
동북대학	응용기계공학과	선정	선정
동북대학	응용기계공학과	선정	선정
동북대학	응용기계공학과	선정	선정
동북대학	응용기계공학과	선정	선정

2. 동북대학 1년 재학비(2009년 3월~8월)

구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년 재학비	100%	100%	100%	100%	100%
1년 재학비	100%	100%	100%	100%	100%
1년 재학비	100%	100%	100%	100%	100%
1년 재학비	100%	100%	100%	100%	100%
1년 재학비	100%	100%	100%	100%	100%
1년 재학비	100%	100%	100%	100%	100%
1년 재학비	100%	100%	100%	100%	100%
1년 재학비	100%	100%	100%	100%	100%
1년 재학비	100%	100%	100%	100%	100%
1년 재학비	100%	100%	100%	100%	100%

2009년 2월 2일 대개강!!

희랍차이나에서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2009년 2월 2일 대개강!!

희랍차이나에서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www.littlechina.co.kr